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⑦ (주)세원코스텍 대표이사김용구

# 기존제품보다 30%이상 저렴한 제품 생산 성공

## 수명 또한 3배 이상 되는 수지분말코팅제 생산



이

지난해 7월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여 기존 제품의 3배이상 효과가 예상되는 방수제와 철판코팅제 개발에 성공한 (주)세원코스텍 김용구(50·사진) 대표이사를 만난다. 전문기술인력인 김 대표이사는 "기업은 이익집단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수명이 오래가고 투가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어야 한다. 즉 수요자를 이롭게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수요자의 입장에서 시공을 하게 되면 그만큼 재투자 요소가 줄어들게 되며 그로 인해 이익을 더 창출해 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

는 물론 저하될 경우 현상 등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하여 벽돌이나 시멘트 위에 코팅이 되면 방수제로 큰 효과를 발휘하며 철에 코팅하면 철이 오랫동안 그 성질을 유지하여 튼튼한 건물로 유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김 대표는 기존의 물성보다는 3배 이상 되는 수지분말코팅제 및 수지분말용기를 개발하여 특허 등록 했으며 이제 본격적인 시판에 나설 계획이다. 페인트 회사와 함께 판촉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기존보다 30%이상 저렴한 가격 경쟁력에서도 앞섰고 있다고 한다. 수지분말코팅제는 염색공정보다 코팅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히는 김 대표이사는 포천지역의 업체에서 일이 들어오면 저렴한 가격에 공사를 하게 되어 있다고 강조한다. 옥상이나 지하주차장 바닥, 물새는 지하실 벽 등에 수지분말코팅을 하게 되면 결로 현상이 없어진다. 김 대표이사는 "기업은 이익집단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수명이 오래가고 투가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어야 한다. 즉 수요자를 이롭게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수요자의 입장에서 시공을 하게 되면 그만큼 재투자 요소가 줄어들게 되며 그로 인해 이익을 더 창출해 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

다. 전용음악이 흐르고 있는 이유를 묻자 김 대표이사는 동양화에 관심이 많으며 노자와 장자 철학을 공부하고 있으며 주역·사주도 취미로 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전망에 대해 김 대표이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품이며 이 부분에 방수제는 현재 캐나다와 독일 등에서 수입하고 있어 외국에 이익을 주고 있다. 이제 세원코스텍에서 생산하는 수지분말코팅제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한다. 김 대표이사는 회사가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하면 동양화를 계속 공부하고자 한다. 회사는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고 공부할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마케팅 분야에서 큰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 또 앞으로 5~6가지 특허등록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 포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 수지분말코팅장치 및 수지분말용기가 제대로 활용됨으로써 수명도 오래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 대표이사는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2층으로 찾아오시면 성심성의껏 설명하고 안내하여 확실한 효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탐방 우리지역 사업소 ⑫ 오성휘트니스클럽 관장 오성영

## 균형잡힌 근육을 약속하는 오성휘트니스클럽



관장 오성영

아름답고 건강한 몸매를 지닌 사람을 요즘 신세대들은 '폼팡'이라고 부른다. 그만큼 건강하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몸매를 누구나 선호하고 있으며 '폼팡' 만들기엔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동참하고 있다. 지난 2002년에 개점해 우리지역 민들의 건강에 활력을 제공하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웰빙생활체육으로 정착시키고 있는 오성휘트니스클럽(포천시 선단동 461-1, 관장 오성영). 경기북부 최고의 시설과 넓고 쾌적한 매장을

으며 그 후 지속적인 훈련과 피나는 노력을 통해 전라북도 보디빌딩대회에서 2004, 2005, 2006년 까지 3연패 전복 챔피언으로 활동하고 있다. 보디빌딩 전국대회에서도 자주 출전해 상위권에 있을 정도로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선수출신으로 역량이 뛰어난 베테랑 관장이다. 오 관장은 선수출신답게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보디빌딩 선수를 희망하는 회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회원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도에 충실하고 있으며 다이어트와 건강관리 차 운동하는 회원들을 회원들의 적성에 맞는 맞춤형 지도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재 오성휘트니스클럽은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유일하게 프리웨이트과정을 준비해놓고 있는 클럽으로 유명하다. 경기활황으로 인해 예전에 비해 회원수가 적어졌지만 지금도 300여명이 넘는 회원들을 관리하며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오 관장은 "보디빌딩은 자기 몸을 아름답게 조각한다는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인간의 뇌를 제일 즐겁게 해주는 것은 바로 먹는 즐거움이다. 보디빌딩 선수들은 시합을 앞두고는 타 종목 스포츠와는 달리 먹는 것이 한정되어있다. 인체의 근육을 가르는 것은 단백질 섭취밖에 없다. 염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시합을 앞둔 선수들의 식단은 감자, 고구마, 닭 가슴살, 계란 흰자부위 등이다. 시합을 앞두고 라면이라도 한끼를 먹게되면 대부분 대회

## 보디빌딩 건강과 다이어트에 최적의 운동 본인의 몸을 조각한다는 마음이 제일 중요

자랑하며 유 산소 운동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보유하고 있어 회원들이 전혀 부족함을 느낄 수 없는 공간이 이곳의 자랑이다. 국내의 보디빌딩 역사는 해방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 후 국민소득의 증가와 산업문명의 발달로 인해 운동부족이 이슈되면서 체력을 증진시킨다는 이유로 80년대부터 곳곳에서 헬스 클럽이 속속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오성휘트니스클럽 오 관장은 유소년 시절부터 모든 운동에 취미를 가지고 좋아했으며 주위에서도 운동 잘하는 것을 인정받을 정도로 소질이 있는 만능 스포츠맨이었다고 말한다. 오 관장은 고교시절 고등부 보디빌딩 전국대회에서 3등이란 호 성적으로 입상한 경력이 있

를 말할 정도로 지장을 받는다. 먹고싶은 것을 참는다는 것보다 큰 고통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오성휘트니스클럽은 개점 5주년을 맞이해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회원들을 위한 특별 기념행사로 회원비를 할인 해주고 있다. 3개월 코스는 기존의 17만원에서 13만원으로, 1개월 코스는 기존의 7만원에서 5만원으로 할인해주고 있다. 기간은 4월 말까지다. 국내 제일의 체육관을 설립한다는 목표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신감 넘치는 오 관장의 모습에서 조속한 시일 내로 그 꿈이 실현되길 기대해 본다. 문의전화 031) 543-4858 HP 010) 5749-9000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5 기사 기사

## 재테크 ⑫ 부자가 되려면 알아야 할 법칙 2 - 복리의 마술

미국 더 나이가 세계 금융가의 심장부인 맨해튼이 1626년 네덜란드 이민자인 피터 미누이트와 인디언 추장의 협상에 의해 단돈 24달러에 팔렸다. 놀라운 백인의 협상력과 인디언들의 우매함을 비웃는 일화로 소개되고 있다.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린치는 이에 대해 1989년 재미있는 분석 자료를 내놓았다. 인디언들이 받은 24달러가 연 8%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하고 복리로 계산했을 때 1989년 가치가 무려 30조 달러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런데 1989년 당시 맨해튼의 실제 가치는 600억 달러에 불과하였다. 백인이 단돈 24달러로 훗날 엄청난 부를 보이지만 복리의 마술을 생각한다면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다. 위대한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 박사마저도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극찬하였다는 복리란 간단히 말해서 일정한 기간과

다 이자를 원금에 합쳐 그 합계 금액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1,000만원을 매년 10%의 확정 수익률 상품에 5년간 투자해보자. 단리로 계산하면 원금 1,000만원에 이자 500만원을 합쳐 1500만원이 된다. 그러나 복리면 이자가 610만원으로 늘어난다. 투자기간이 길수록 차이가 엄청나서 20년이 되었을 때 단리는 원금과 이자합계가 3,000만원인 반면 복리는 6,724만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리가 제대로 마술을 부리려면 시간이 길어야 한다. 즉, 비록 적은 돈이라도 하루 빨리 투자를 해야 복리의 마술에 의해 돈의 크기가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복리 금융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은행에서는 복리상품을 찾기 어렵다. 특판용으로 잠깐 팔리는 상품이라든가, 복리도 해도 3년

정도로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큰 효과를 볼 수 없다. 반면 보험 상품과 펀드는 복리효과를 볼 수 있는 대표적 금융상품이다. 연금보험을 예를 들어 30세부터 가입하는 경우와 35세부터 가입하는 경우 시간의 효과가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를 비교해 보자. A씨는 30세부터 54세까지 20년 동안 월 10만원씩 불입해서 연금 수령기간 20년 동안 1.48억을 받는 반면, 5년 늦게 시작한 B씨는 9,556만원으로 A보다 무려 5,200만원이나 적게 받는다. 5년이라는 시간이 엄청난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는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하

투라도 젊어서 시작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준다. 겨우 한 방울의 물이 바위에 구멍을 내고, 마침내 바위를 들러 갈라놓은 힘은 위대한 세월의 승리이다. 결국 우리가 가진 자산 중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시간이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시간이 돈이다. 무료상담 한경희 컨설턴트 011-9030-7917



무료상담 한경희 컨설턴트 011-9030-7917

정	10	7	의	연	금
					20
: 30	4	2	3000	61	1 4 0 0
: 3	4	20	2400	3	6

## 세

중지급 조의 금 영역의 제공이 되기 전에 계급 이외의 대가를 나누어서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급을 지급하기로 한 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므로, 이때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이 사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큰 해를 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어 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1) 의 이 할 금을 한다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된다. 물론,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과세를 한다. 그러나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대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이를 밝히기가 어렵다. 특히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신용대출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 본인인 거액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질사업자를 밝히기가 더 어렵다. 2) 재 을 할 수 도 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지 않은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내지 않고 실질사업자도 밝히지 못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체 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세금을 충당한다. 3) 로 명 이 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명의를 빌려주면 실지로는 소득이 없는 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므로 건강보험료 부 이 대 늘 어나게 된다. 자료제공 의 정 031-870-45)

## 자 작

재 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더 에이 프런 자동차용 공장에서 재해자가 자동차 용 점 로 3호기 제품취출작업에 이상이 있음을 발 하고 자동차용 점 로 3호기 작동에 이상이 있어 4호기로 제품이 이 되지 않는 것을 고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 에서 출입문이 아닌 방 사이 개구부 ( 52 )로 들어가 지그의 이상 유무를 살펴본 중 자동차 용 점 로 3호기와 지그에 협착됨. 재 인 가. 산업용 로 의 수리 등 작업 시 안전조치 미 로 의 작동 위 내에서 로 의 수리·사·조정 등의 작업시에는 로 의 운전중 정지하고 기동스위치 열 로 잠근 후 별도 관리하거나 기동스위치에 '작업중' 표시판 부착 등의 조치를 해야 하나 미조치 했음. 나. 산업용 로 의 운전중 위험방지 조치 미 로 을 운전하는 경우

근로자가 로 과 접촉하지 않도록 안전매트 또는 높이 1.8 이상의 방을 설치해야 하나 근로자가 의 출입이 가능한 개구부가 존재하는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호조치가 미 했 음. 재 가. 수리·사·조정 작업중 표시판 부착 로 의 작동위내에서 로 의 수리·사·조정 등의 작업시에는 로 의 운전중 정지한후 기동스위치에 '작업중' 표시판을 부착해 다른 근로자가 로 조작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함. 나. 안전매트 및 방 설 치 로 을 운전하는 경우 근로자가 로 과 접촉하지 않도록 안전매트 또는 근로자가 의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개구부가 없는 높이 1.8이상의 방을 설치해야 함. 자료제공 국 전 공 단 기 지 031-86-6091)

## 국민연금 Q&A 재혼시 분할연금을 지급한다고 한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혼한 여자가 60세 넘어야 지급시작 재혼하면 지급이 정지되나 제도 개선 중 분할연금은 이혼 배우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절반을 지급하는 제도다. 여성수급권을 확대하기 위해 98년 말 도입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가입자가 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동시에 배우자였던 분할연금 수급대상자가 60세 이상이 돼야 한다. 60세 이전에 가입자였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또 분할연금 수급대상자가 60세 이전에 사망하면 받을 수 없다. 제한적인 요소가 많은 셈이다. 때문에 가입기간의 가입자 소득을 이혼 때 양분해 각각 갖도록 하는 가입이력분할이 논의되지만 채택은 안 됐다. 분할연금은 원래 재혼 할 때는 지급이 정지됐다. 그러나 유족연금과 같은 파생급여가 아니라 재혼을 나누는 성격이 강해 재혼으로 수급권이 제한되는 것은 지나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런 논의에 따라 재혼 시 지급을 정지하는 분할연금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따라서 분할연금 수급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대상자는 주로 재혼한 여성 배우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 국민연금 수령자의 연금에서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을 우선 제해 왔던 제도가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노령연금 수령자의 연금에서 공제돼 왔다. 그러나 이혼한 배우자의 청구가 있기 전까지는 노령연금 수령자에게 연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또한 연금 급여에서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때 매회 지급할 연금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분할연금수급권자(법57조의2)> : 혼인기간(국민연금가입기간 중)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수급권자와 이혼한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지급 받는 연금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지사 031-544-8700